

풍경은 어떻게 변하는가?

소녀상, 주한일본대사관,
그리고 중학동

최희전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영문학 전공
claracj@cku.ac.kr

- I. 머리말
 - II. 그곳, 주한일본대사관
 - III. 그곳, 풍경이 변하다
 - IV. 맺음말
-

I. 머리말

윌리엄 미첼(W. J. T. Mitchell)은 1991년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를 인터뷰하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독해 불가능한” 일군의 현대공공미술품을 “소고기 요리 옆에 놓인 고명”에 비유한다.¹ 일차적으로는 건물을, 궁극적으로는 공공장소를 보기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장소(그릇)의 건축물(소고기 요리) 주변에 설치된 현대공공미술품(고명)에 대한 이 언급은 “대중을 심미적으로 계도하고 도시환경을 미화”²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공공미술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다. 이 시선에 의하면, 고명의 있고 없음이 음식의 품미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지는 않듯이, 공공미술품의 있고 없음에 따라 공공장소의 정체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첼이 언급한 고명으로서의 공공미술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여분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군의 공공미술품은 심미적 잉여로 남게 되는가? 그릇 속 음식을 완성하는 동시에 음식을 품은 그릇을 포함한 전체와 유기적 관계 맺기에 실패한 고명이 음식의 잉여로 남게 되듯, 이는 이들 공공미술품이 설치장소인 도심 및 건축물과 유의미한 관계 맺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실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공공미술품이 도심 속 건축물에 부속된 장식적 요소로 이해되는 현실이 그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³, 작품과

1 Mitchell, W. J. T., “An Interview with Barbara Kruger”, *Critical Inquiry*, Vol. 17, No. 2(1991), p. 447.

2 미국의 경우,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의 ‘건축 속 미술프로그램’이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의 ‘공공장소 속 미술프로그램(Art in Public Place Program, APP)’이 이에 해당한다. 권미원(저), 김인규·이영옥·우정아(역), 『장소 특정적 미술』(현실문화, 2013), 102쪽.

3 우리의 경우, 미국의 ‘건축 속 미술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문화예술진흥법

설치장소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벼이 여긴 일부 건축가와 작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⁴ 또한, 박미예의 지적대로, 복잡다단한 맥락이 존재하는 도심 속에 설치된 단단한 오브제 하나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⁵, 그것이 설치된 도심 환경과 어우러진다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고명으로서의 공공미술품과 달리,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동시에 환경 일반과 연계하여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내는 공공미술품 역시 존재하는바, 이들 미술품은 그 공적 공간에 들어섬으로써 그것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을 풍경을 만들며 그곳의 풍경이 된다. 그러니 이들 미술품이 빚어내는 풍경이란 그‘것’이 그‘곳’에 있음(생김)으로 그곳을 ‘만들어가며’ 그곳이 ‘되[어]가는’ 사건이며, 그런 까닭에 풍경은 명사 아닌, ‘만들[어]간다’와 ‘되[어]간다’는 동사적 역학 속에 존재한다 할 것이다.⁶

풍경은 풍경이 되어간다. 그것이 그곳에 있음으로, 그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그곳의 풍경을 만들며, 풍경은 풍경이 되어간다. 처음, 주한일본 대사관이 있어 그곳에서 수요시위가 진행되었고⁷ 그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법’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르면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참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참조.

4 헨리 무어는 장소가 지닌 조건이 작품에 영감을 주기보다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소의 조건은 작품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미원, 앞의 책, 98~100쪽.

5 박미예, 「장소를 형성하는 공공미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7권 제5호(2021), 21쪽.

6 Mitchell, W. J. T., “Introduction”, W. J. T. Mitchell(ed.), *Landscape and Powe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 1 참조.

7 수요시위의 요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및 역사 교과서에 기록과 ‘위안부’ 관련 추모비

설치되었으며⁸ 다음, 주한일본대사관이 철거되자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새롭게 모여들며 종로구 중학동의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풍경은 변하였다. 이 변화된 중학동 풍경의 중심에는 사라진 주한일본 대사관과 남겨진 소녀상이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그것이 그곳에 있었음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채,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사라진 그곳에서 가림막에 가려진 그것의 흔적, 그 이중의 있음과 없음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니 그곳의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의 있음과 없음, 없음과 흔적 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실재하지 않은 채,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주한일본 대사관의 존재와 부재의 이중 속에서 소녀상 주변 그곳의 풍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며, 본 논문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그곳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풍경을 견인해 내며, 그곳의 풍경이 ‘되[어]가’는 소녀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미술품이면서도 미술 계에서보다는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소녀상⁹이 그것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들과 더불어 빚어내는 풍경에 대한 본 논의의 한 축은 당연히,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인 주한일본대사관이다.

와 사료관 건립으로 요약된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참조.

-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으로부터 수요집회 1,000회차를 기념하는 작은 비석을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구상 중, 비석을 세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압박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격분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오히려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로 구상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소녀상’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평화의 소녀상 작가 노트』(말, 2012), 16~19쪽, 59쪽. 통상 ‘소녀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조형물의 명칭인 ‘평화의 소녀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비석(평화비)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조형물(소녀상)로 변모하게 된 과정을 반영한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조형물을 작은따옴표 없이, 소녀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 9 최범, 『한국디자인과 문화의 전환』(안그래픽스, 2019), 145쪽.

논문의 II장은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특정 장소와 맺는 관계에 대한 해제로, 소녀상 설치장소인 옛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III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이전 이후,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소녀상을 둘러싼 풍경의 변화에 대하여 논한다. 논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철거가 불러일으킨, ‘장소 없는’ 곳에 설치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품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집중하여,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특정 장소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것이다. 종장인 IV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이라는 특정 장소를 벗어나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 및 국민적 경계를 넘나드는 소녀상의 변모에 주목하며, 이것이 만들어낼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II. 그곳,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의 문제 해결” 및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¹⁰을 요구하며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진행 중인 수요일 위 1,000회를 기념하며 2011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되었다. “수요일시에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지원자들의” “20년간의 수요일, 그 정의의 투쟁을 역사에 남기”¹¹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시민 지원을

10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수요일위의 요구 사항은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11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2017), 280쪽.

받아 김서경·김운성 작가 부부가 제작하였다.¹²

수요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주제의 집회로 기록되고 있는 바¹³, 정희선은 집회 주체와 집회대상 사이의 “극심한 힘의 불균형”¹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고령의 피해 여성 및 시민 단체 대 일본 정부라는, 명백히 기울어진 힘의 구도에 대한 정희선의 분석에 더하여, 전시 군 성노예 제도라는 의제 자체가 지닌 절박함 역시 이 집회의 동력일 것이다. 이 절박함의 배경에는 ‘위안소’는 군대 매매춘시설과 다르지 않으며, ‘위안부’는 군 매춘부와 다르지 않다는¹⁵ 전시 군 성폭력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체계가 존재한다. 이 인식체계의 전환에 대한 피해자의 절박함은, 이 인식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에 기생하려는 가해국의 절박함과 상충하며, 수요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녀상은 수요시위 장소이자 그것이 상징하는 위안부 의제를 가장 강력하게 발의할 수 있는 장소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라는 구도는 다분히 폭력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의 발현이라는¹⁶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녀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주한일본대사관이었다는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발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¹⁷,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그것이

12 소녀상의 조형적 특징과 의미, 그리고 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평화비 건립지원」 참조.

13 장보경, 「가장 오래된 단일 집회’... 오늘 1,400회 수요시위」, 《연합뉴스》, 2019년 8월 14일자.

14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2013), 102쪽.

15 우에노 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관점」, 우에노 지즈코·아라라기 신조·히라이 가즈코(편), 서재길(역),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어문학사, 2020), 31쪽.

16 최범에 의하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재현방식은 조선 대 일본이라는 민족문제는 부각할 수 있으나, 젠더 혹은 계급문제 등으로 확장하기에는 편협하다. 최범, 앞의 책, 160쪽.

17 김서경·김운성, 앞의 책, 110쪽.

설치된 장소적 적절성은 부인하기 어렵다.¹⁸

수요시위의 시위장소인 동시에 시위대상이기도 “한국 속의 일본”¹⁹ 주한 일본대사관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됨에 따라 1965년 6월 30일 주서울재외사무소를 개설, 동 조약의 발효일인 1965년 12월 18일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임시 대리대사를 장으로 하여²⁰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반도호텔 5층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식 업무를 개시하였다.²¹

지하 1층 지상 8층의 반도호텔은 당시 한반도 최고 재벌, 일본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가 세웠다.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파를 졸업한 노구치는 1923년 일본에 암모니아 합성공장을 설립했다가 사업 기반을 조선으로 옮겨, 1927년 흥남에 질소비료 공장을 건설, 이를 모기업으로 삼아 조선을 대륙 침략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일본 군부와 결탁하여 군수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부를 일궈낸 인물이다.²² 이 과정에 총독부와 경찰이 개입하

18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서울+문화》, 2016년 4월호.

19 리영희, 「주한일본대사관」, 『정경연구』 제78권(1971.7), 90쪽, 92쪽.

20 리영희는 『정경연구』에 발표한 위의 글에서 “한국에 ‘일본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이 개설된 것은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 해인 196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1985년 『자유』 제2호(1985.8.15.)에 동일 글을 재수록하며, 대사관 개설연도를 1966년에서 1965년으로 수정하였다. 주한일본대사관 역시 홈페이지에 개설연도를 1965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리영희, 위의 글, 91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리영희 선생님이 전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이야기」; 이영희, 「주한 일본대사관」, 『자유』 제2호(1985.8.15.), 19쪽;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오세중,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한대사관의 역사: 일본대사관 편」, 《아주경제》, 2014년 1월 24일자.

21 리영희, 위의 글, 92쪽; 이동휘·정우영, 「일,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끝다 돌연 취소」, 《조선일보》, 2019년 4월 10일자.

22 전우용, 「[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화학비료」, 《한겨레》, 2019년 8월 13일자; 차승기, 「[1930년대, 우리 시대의 뿌리를 찾아서] ‘식민주의의 그라운드 제로’ 흥남」, 《주간경향》 1235호, 2017년 7월 18일자 참조. 차승기는 이 글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여 식민 조선인의 생명이 “소모적 ‘노동력’”으로 배치되었음은 물론이다.²³ 이와 같은 자금력을 배경으로 황금정(을지로) 1정목 18번지에 세워진 반도호텔은²⁴ 윤상인이 지적하듯, “종주국의 거대자본이 식민지에서 축적한 이익을 토대로 설립한 전형적인 식민지 호텔”²⁵이라 할 것이다.

1938년 4월 1일 영업을 시작하며, 식민지 재벌 노구치의 서울사무소 겸 간부 직원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던 반도호텔은 그 맞은편의 미쓰이(三井), 스미토모(住友), 미쓰비시(三菱) 지점들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 아래 한반도 경제침략의 거점이 되었다.²⁶ 이후 1945년 광복과 함께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 제24군단 사령부가 주둔하며 당시 이승만, 김구, 김구식 박사 등이 등장하는 정치무대의 막후교섭장으로 부상하기도 한 이곳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미 양국의 공영과 협력을 상징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에 증여되어 미국대사관과 미 경제협조처의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53년 휴전 이후, 이곳은 다시 한국 정부가 매입·수리 후, 1954년 외국인 전용 호텔로 개장하였다가 이후 내국인 역시 이용하게 되었다.²⁷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신축 전까지, 일본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노구치의 결탁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23 차승기, 「불안한 조우－식민지/제국 시기 흥남-미나마타(水俣)의 이주노동자들」, 『인문학연구』 제54집(2017), 443~444쪽, 449쪽.
- 24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한울, 2003), 242쪽.
- 25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제6호(2012), 211~212쪽.
- 26 손정목, 앞의 책, 243쪽. 이 건물 1층에서 5층은 노구치가 경영하던 회사와 임대사무실로, 6층에서 8층은 객실로 사용되었다.
- 27 「반도 ‘호텔’ 철거 작업 한창」, 《중앙일보》 1974년 11월 21일자; 이돈형, 「관광 민영화|위키컬 반도호텔도 팔린다」, 《중앙일보》, 1968년 11월 30일자; 이진현, 「호텔산업의 탄생(2) | 반도호텔의 등장」 日 자본 결정체... 해방 후 美 대사관으로」, 《월간중앙》 1455호(2018.10.22.); 홍희곤, 「반도호텔/해방 후 격동 속 「작은 정부」로 ‘위세’(그때 그 자리)」, 《한국일보》, 1992년 2월 6일자 참조.

1966년 8월 당시, 평당 월 3,400원의 세를 내며 반도호텔 5층의 10여 개의 방을 사용하던 일본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도쿄에 독채의 주일한국대사관 건물을 갖고 있음을 고려²⁸, 서울 시내에 일본대사관 건물을 마련하기로 한다. 단, 신축할 것인지 혹은 매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예산집행에 따른다는 것이 당시 일본대사관의 기본 입장이었다.²⁹

이후, 대사관 신축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한·일간의 역사 및 정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로구 중학동 18-2의 760여 평을 주한일본대사관 신축부지용 토지로 선정하고³⁰, 1968년 3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허가한다.³¹ 이후, 일체의 재료를 일본에서 들여와 준공된³² 주한일본대사관은, 리영희의 해석에 의하면 “중앙청을 직선거리로 삼사백 미터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각도로 보나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 “그것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거의 식민지 국가에 들어서는 대사관의 자리로서는 안성맞춤 이상으로 이상적”인 자리에 있다 할 것이다.³³

28 1962년, 제일 기업인 서갑호는 본인 소유의 도쿄 미나미아자부 요지의 1만 218㎡ 면적의 땅과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한국 정부에 기증하였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본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터! '제일 기업인 서갑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29 한태열, 「주한 전초지 일본대사관」, 《동아일보》, 1966년 8월 15일자.

30 대사관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남산 터, 운현궁, 내무부 건물((구)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거론되었으나 모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거절되었다. 리영희, 앞의 글 참조.

31 외교부·외교문서공개, 「[5901]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1974, 전 3권」.

32 리영희, 앞의 글, 91쪽;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사관은 1976년 12월 완공되었다. 이동휘·정우영, 앞의 기사.

33 리영희, 위의 글, 91~92쪽. 1971년의 리영희의 주한일본대사관 입지에 대한 관찰과 달리, 2021년의 데이비드 심(David Shim)은 소녀상이 종로라는 “활기찬” 서울의 보도에 설치되어 일상의 보행자들이 쉽게 “몸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애써 “눈에 띄지 않”³⁴던 이 건물이 예기치 않게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사건이 벌어지니, 1992년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 중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가 그 하나요, 2011년 그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또 다른 하나다. 이를 계기로 그곳은 이제까지 그곳을 알지 못했거나 굳이 찾을 일 없던 이들까지도 기꺼이 찾아보고자 하는 ‘곳’이 되며, 그곳의 풍경은 변화한다. 그리고 2016년, 풍경의 한 축을 이루던 주한일본대사관 철거와 함께 그곳의 풍경은 다시 한번 변하게 된다.

대사관준공 44년·소녀상 설치 2년 후인 2013년, 주한일본대사관은 대사관의 노후와 협소함 등을 이유로 동일부지에 대사관 신축을 추진하며 2015년 7월 울곡로 트윈트리타워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고³⁵, 2016년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을 철거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대사관 신축공사를 사실상 방치³⁶, 2019년 종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주한일본대사관의 건축허가를

그가 묘사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주한일본대사관 일대는 술집과 카페, 사무용 건물이 들어선 상업구역이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그리고 호텔이 들어선 관광구역이며, 주한미국대사관과 대한민국의교부가 들어선 외교 구역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입지에 대한 리영희와 데이비드 심, 이들 두 관찰자의 확연히 다른 기술은 1971년과 2021년이라는 40년 세월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고, 종로(혹은 서울)라는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David Shim, “Memorials’ Politics: Exploring the Material Rhetoric of the Statue of Peace”, *Memory Studies*(2021), p. 7.

34 리영희, 위의 글, 92쪽. 이와 같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를 대사관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일본대사관 당국이나 일본 외무성에 의해 다분히 의도된 바였음을 리영희는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공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처럼 올지로 한복판이나 종로의 대로에 면해서 솟아있는 일본대사관은 생각하기만 해도 거북스럽다. 바로 그것이 이 자리를 택한 일본대사관 당국이나 일본 외무성의 이유였다고 주한일본 외교관의 최고참인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공사는 말한다.”

35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현재 트윈트리타워 부지는 1968년 김수근이 설계를 맡아 준공한 옛 한국일보사옥 자리다.

36 일본대사관 측은 기존의 23.45m였던 건물을 35.8m 높이로 신축하겠다는 안을 토대로 2012년 5월 종로구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취소하기에 이른다.³⁷ 이는 건축허가 4년 만의 일로, 2019년 2월 주한일본대사관은 대사관 신축에 관한 본국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음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종로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⁸ 이에 대하여, 대사관 정면에 설치된 소녀상과 소녀상이 불러모으는 다양한 시선이 대사관 측에 부담이 되어 동 부지에 대사관 신축하기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외교가를 비롯한 일각의 추측이 있다.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외교가 추측 중 하나다.³⁹

신청하였다. 대사관이 “운현궁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최대 높이 30m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이 정한 건물 최고 높이를 초과한 일본대사관의 신축 안이 경복궁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일본대사관의 계획안은 2012년 7월,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 이후 일본대사관 측은 건물의 높이를 낮추는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문화재청은 2013년 7월, 이 안을 허가한다. 이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월, 해당 부지에서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기초시설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4월,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해 5월, 대사관 측은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해놓았던 공간에 흙을 덮으며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 2019년 2월, 주한일본대사관 측은 신축공사 포기를 공식화한다. 박창욱,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위법·외압 의혹」, 《머니투데이》, 2013년 10월 14일자; 임인택·노형석·박병수, 「주한일본대사관 3배 크기로 신축 추진」, 《한겨레》, 2012년 6월 23일자.

- 37 건축법상, 건축허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신청 없이 허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종로구는 그간 일본대사관 측에 수차례 공사 시작 요청을 하였으나 대사관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일본대사관 신축 지연, ‘소녀상 때문’은 공공연한 비밀」, 《연합뉴스》, 2019년 11월 5일자.
- 38 이동휘·정우영, 앞의 기사. 대사관 신축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한 《조선일보》의 문외에 일본 외무성은 “(건축)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포함해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다.
- 39 김도훈, 앞의 기사; 이동휘·정우영, 위의 기사; 일본 정부는 1968년 3월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신축부지용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부지가 일본 정부 소유이기에 일본 측은 언제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외교문서공개, 앞의 글 참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주한일

사무실은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은 철거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철제 가림막이 둘러쳐져, 가림막 안 허물어진 그것을 경찰과 그들의 버스가 이중경호 중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앞, 높이 130cm의 소녀상은 가림막과 경찰버스로 겹으로 둘러싸인 그것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노상에 홀로 앉아있다.⁴⁰



그림1-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철거 후(2020년, 왼쪽)와 철거 전(2013년, 오른쪽)의 중학동 실사 지도⁴¹

본대사관 신축 포기에 관련한 국내 신문방송의 모니터 결과는 이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임동준·조선희, 「일본대사관 지으라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년 4월 12일자.

- 40 김세린은 이를 소녀상과 그 주위의 시민들을 우리 경찰이 감시하는 기묘한 대치 상황으로 묘사한다. 김세린, 『평화의 소녀상을 그린다』(보리, 2018), 160쪽.
- 41 스마트서울맵에서 구현한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철거 전(2013년)과 철거 후(2020년)의 실사 지도비교. 주한일본대사관 철거 이후 역시 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경찰기동단 버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 텅 빈 주한일본대사관 부지를 경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상은 횡단보도 건너편, 주한일본대사관을 마주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서울맵 참조.

Ⅲ. 그곳, 풍경이 변하다

2016년, 이 특별한 중학동 풍경으로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은 사라지고 가려졌다. 일본을 상징하는 기호, 주한일본대사관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곳에서 수요시위가 열렸던 것이고, 그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었던 것이나 그것은 이제 지워져 차 벽 뒤, 가림막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여기에 문제의 모호함이 있다.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으나, 없는 것을 경비하지는 않는 법이니 딱히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있는가 싶다가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딱히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모호함 말이다. 임경규는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정크스페이스」를 해제하며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등의 표지판 뒤, “쓰레기처럼 버려진 암흑의 공간”이 지닌 그 모호함을 “변화와 혁신”의 미래적 기표로 읽어내나⁴²,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터를 둘러싼 가림막 너머 그곳으로부터 종래에는 도래할 것이라 예견되는 그 어떤 변화도 아직은 감지된 바 없다. 대신, 버려진 암흑의 공간이자 도래할 변화의 공간인, 없으나 있고 없고도 있는 가림막 너머의 ‘곳’을 소녀상이 응시하(지 못하)고⁴³ 있을 뿐이다.

42 임경규, 「해제: 정크스페이스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렘 콜하스·프레드릭 제임슨(저), 임경규(역),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문학과지성사, 2020), 98쪽; Koolhaas, Rem, “Junkspace”, *October*, Vol. 100(Spring, 2002), pp. 175~176. 콜하스는 이 글에서 언어 변용을 통하여 자신의 공간이론인 “정크스페이스(junkspace)”를 구축하고 있다. 콜하스의 신조어 “정크스페이스(junkspace)”는 대문자로 표기되는 고유명사다. 이 명사는 보통명사인 “우주 쓰레기(space junk)”의 어순을 도치하여 “쓰레기 공간(junk space)”이라는 복합명사를 조어한 후, “쓰레기(junk)”와 “공간(space)” 사이의 공간을 없애고 “쓰레기(junk)”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공간개념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조어되었다.

43 데이비드 심은 주한일본대사관 터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는 소녀상이 그것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로, 일본의 정치적 부정(political denial)에 상응하는 행위라고 해석한다. Shim, David, *op. cit.*, p. 9.

1. 사라진 것, 그리고 펼쳐지는 풍경

처음, 조형물의 의미는 오브제에 내재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놓인 장소적 맥락에 의하여 구성되고 강화된다는 미학적 신념에 의하여 소녀상은 다른 곳 아닌,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었다.⁴⁴ 박지윤이 지적하듯, 이러한 미학적 신념 위에 정치적 의도 또한 없었을 것이다.⁴⁵ 그러니 그것, 주한일본대사관이 사라진 지금, 소녀상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있어야 하는가? 2015년 주한일본대사관의 임시청사로의 이전과, 2016년 주한일본대사관 건물 철거 이후의 소녀상의 거취와 관련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우리는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와 관련한 공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미국 조달청(GSA) 의뢰로 장소 특정적 미술품으로 기획·제작되어 1981년 뉴욕 연방 청사 광장에 설치되었다가, “조각의 외관이 흉물스럽고 광장이 가로막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⁴⁶는 이유로 1989년 철거되었다.⁴⁷ 작품 철거와 관련한 4년간의 공방 내내, 세라

44 이태호를 비롯하여 김준기는 소녀상을 장소 특정적이지자 행동주의적 작품으로 평가한다. 최범, 앞의 책, 157~158쪽.

45 박지윤은 소녀상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작동”하는 미술품으로 독해하고 있다. 박지윤, 「정의의 여신상과 소녀상」, 『법과사회』 제63권 (2020년 2월), 42~43쪽.

46 이승훈, 「공공미술과 공론장 형성: ‘공공성 딜레마’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제43권 제4호(2019), 53쪽.

47 ‘기울어진 호’(1981)는 ‘건축 속 미술프로그램’에 따라 조달청(GSA)이 1979년 리차드 세라에게 의뢰하여, 1981년 맨해튼의 제이콥 K. 자비츠 연방 광장 앞에 설치한 공공조각물이다. 이 작품은 설치 이후, 높이 3.6미터, 길이 36미터의 코르텐 강철 벽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1985년부터 철거 및 이전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천여 명의 공무원, 근로자, 그리고 통행인들이 철거에 찬성 서명을 한 결과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고, 4년간의 논란 끝에 GSA는 철거를 결정하고 1989년 3월 15일 이 작품은 철거된다. 전해숙, 「리차드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특수성

는 ‘장소’ 특정적 작품인 ‘기울어진 호’를 ‘그 장소’로부터 철거한다는 것은 결국 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⁴⁸ 주장을 펼쳤다. 장소 특정적 작품이란 작품이 설치될 장소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내포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부터 유리된 장소 특정적 작품은 ‘그’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세라의 주장이다.⁴⁹ 여기서 세라가 명시하는 바는 유형적 건물과 동선뿐만 아니라, 무형적 맥락을 포함하는 장소와 작품 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성, 그 “상호의존성”⁵⁰이다. 그러니 긴밀히 연결된 그들 중 하나를 임의적으로 들어낸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 역시 기능할 수 없도록 하는, 따라서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세라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⁵¹ 하여, 세라는 장소로부터 유리될 운명의 장소 특정적 작품 ‘기울어진 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선언한다 - “그 일은 완수되어, 이제 ‘기울어진 호’는 파괴되었다”.⁵²

‘기울어진 호’가 보여주듯, 장소 특정적 작품을 특정 장소로부터 유리시킨다는 것은 ‘그’ 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품이 설치된 장소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작품으로부터 ‘그’ 장소를 유리시킨다면 말이다. 장소로부터 작품을 들어낸 ‘기울어진 호’와 마찬가지로, 작품으로부터 장소를 들어낸 경우 역시, 작품은 사망

(Site-Specificity)』, 『현대미술사연구』 제10권(2000년 3월), 86~87쪽.

48 이는 1985년 1월 1일, 세라가 당시 ‘건축 속 미술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돈 탈레커(Don Thalacker)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로, 이 편지에서 세라는 ‘기울어진 호’는 단 하나의 특정 장소인 연방 광장을 위해 의뢰받아 디자인된 장소 특정적 작품으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Serra, Richard, “Tilted Arc Destroyed”, *Nova Law Review*, Vol. 14, Issue 2(1990), p. 386.

49 Serra, Richard, *ibid*, p. 397.

50 Serra, Richard, *ibid*, p. 397.

51 Serra, Richard, *ibid*, p. 397.

52 Serra, Richard, *ibid*, p. 386.

에 이를 것인가?

이태호는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품으로서의 소녀상과 설치장소가 맺는 문맥적 중요성을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이 움직이지 않는 한” 소녀상 역시 “그 어떤 협약이나 권력에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³ 장소 특정적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그’ 장소를 벗어날 때 작품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⁵⁴ 장소 특정적 작품과 장소 ‘간’ 관계에⁵⁵ 기반한 그의 주장을 새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 주장이 환기하는 다음의 질문이다 - 그러니, 주한일본대사관이 움직인 지금, 장소 특정적 작품인 소녀상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장소 특정적 작품으로서의 소녀상의 궁극적 설치장소에 대한 이 질문을 주한일본대사관의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그들의 “상호의존성”⁵⁶이다. 그러니, 주한일본대사관은 어디에 있는가?

엔 오츠(Enn Ots)는 그의 건축이론 안내서에서 존재와 부재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부분으로 작동하는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도널드 팔머(Donald Palmer)를 인용한다.⁵⁷ 이중 부정을 통해 도출되는 이와 같은 존재의 이중성은 가림막

53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앞의 글.

54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위의 글.

55 장소 특정적 예술은 설치장소와 작품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작품의 의미가 도출되는 예술이기에, 그 예술품이 특정 장소로부터 유리될 경우,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작품의 의미가 상당 부분 손상된다는 것이 장소 특정적 예술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56 Serra, Richard, *op. cit.*, p. 397.

57 Ots, Enn, *Decoding Theoryspeak: An Illustrated Guide to Architectur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p. 3. 팔머는 이 주장을 유인하기 위하여 원자론과 유기론을 구별한 후 구조주의자들의 유기론(structuralist organicism)으로 논의를 확장, 이중 부정이라는 수사 속에서 우리 눈앞에 ‘없는’ 사물의 ‘있음’을 긍정하며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한다”는 구조주의의 주장을 확인한다. Palmer, Donald,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for Beginners*, New York:

뒤 ‘없는(부재하는)’ 것으로 ‘남아(존재하며)’ 일본 정부의 집적된 (비가시적) 영향력 혹은 유서 깊은 (비가시적) 터로 여전히 작동 중인 주한일본대사관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팔머의 설명을 따르자면, 일본 정부를 상징하는 주한일본대사관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그것이 속한 시스템 속에서 관계의 자기력을 매개하고 자장을 형성하며 정치·사회적 벡터로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가 주한일본대사관 ‘없는’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행해진 1,400회차 수요집회를 바라보며 느꼈던 “공허함”과, 집회 참가자들이 규탄하는 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갖게 된 “위화감”은 시스템 속에서 작동 중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지 못한 자의 감상이라 할 것이다.⁵⁸ 사와다가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⁵⁹, 그곳에 보이지 않기에 부재한다 토로했던⁶⁰ 일본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가 명확히 서술하듯, 평소 “수십 명 규모”의 집회에 “천오백여 명”의 참가자들을 그날 그곳에 운집시키고, 운집한 그들이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하는 의미”의 “‘NO 아베’ 티셔츠”를 입도록 한⁶¹ 정치·사회적 벡터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와다가 묘사한 2019년 8월 14일의 주한일본대사관 ‘없는’ 곳 앞의 집회 풍경은 세라가 주장한 장소 특정적 미술품에 특정된

Writers & Readers Publishing, Inc., 1997, p. 2.

58 사와다 가쓰미(저), 정태섭(역), 『한국과 일본은 왜?』(책과함께, 2020), 16~19쪽.

59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이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위안부’ 문제를 함께 기억하기 위하여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60 사와다 가쓰미, 앞의 책, 19쪽.

61 사와다 가쓰미, 위의 책, 16~17쪽.

장소에 대한 뒤집힌 삽화로 유용하다. 세라가 장소 특정적 작품인 ‘기울어진 호’를 특정 ‘장소’로부터 철거한다는 것은 곧 이 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을 때, 그가 의미한 ‘장소’는 특정 규모와 형태의 구체적 건물을 의미하는 동시에 - 41층 높이의 연방 청사의 외관은 높고 넓고 육중한 직각형 건물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 조달청 소유의 그 건물이 속한 광의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그 맥락에 의해 파생되는 심리적 압박감 혹은 위축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⁶²

장소를 잃고 맥락을 잃은 ‘기울어진 호’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뉴욕 연방 광장이라는 특정 장소를 위해 제작되고 설치된 ‘기울어진 호’가 장소와 맥락 모두를 잃고 파괴되었다면, 위의 사와다의 진술은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맥락 - 정치·사회적 맥락, 자기장 - 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았음에 대한 반증이다. ‘옛 주한일본대사관’이라 불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없는 그 ‘빈 곳’은 그 이름 속으로 소녀상이 응시하던 주한일본대사관(이 상징하던 것들)을 “환유적”으로 “치환”시킨 까닭이다.⁶³ 이는 사와다가 불편하게 진술하듯, 《마이니치신문》이 소녀상의 위치를 여전히 “일본대사관 터 앞”이라 명하고, 한국 언론이 그곳을 “옛” 일본대사관 앞이라 명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⁶⁴ ‘옛 일본대사관’이라는 명칭은,

62 미국 연방 청사 중, 가장 높은 청사로 알려진 이 41층짜리 청사에는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미국 사회보장국, 미 조달청, 미국이민국, 연방수사국 뉴욕지부 등이 입주해 있다. 세라는 보행자들이 이들 입주기관이 상징하는 국가·정부 권력을 물리적·심리적·신체적으로 ‘불편하게’ ‘재경험’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호’를 기획·설치하였다.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홈페이지 참조.

63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아테네의 폐허를 바라보며 사라진 모든 것들이 그 이름, 그 명칭 속으로 환유적으로 치환되었다는 통찰을 보이며, 이를 “환유적 치환(metonymic substitution)”이라 명한다. Derrida, Jacques, *Athens, Still Remains*, Pascale-Anne Brault and Michael Naas(trans.)(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p. 3.

64 사와다 가쓰미, 앞의 책, 19쪽.

그것 ‘없는’ 그곳이 그것의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 옛것 위에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녀상은 이제, 흔적으로 남은 그것 없는 그곳에 새로이 덧씌워지고 있는 소녀상(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반대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 속에 놓이게 된다. 주한일본대사관 없는 그곳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현상은 식민지 역사에 대한 양분된 정치적 기억과 담론을 표출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적 가치를 적나라하게, 그러나 산발적으로 드러내며 혼동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2. 남겨진 것, 그리고 펼쳐지는 풍경

가림막 뒤로 사라진 주한일본대사관과 함께 그곳의 풍경 역시 변화였다. 정면의 옛 주한일본대사관과의 대칭 구도 속에서 과거사 문제를 의제화하기에 성공하며 상징 투쟁의 장으로⁶⁵ 작동하던 소녀상은 이제 역사를 기억하고 왜곡하며, 옹호하고 이용하며,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 변화의 전경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사죄를 촉구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도의 수요시위와 수요시위의 주장을 전면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반일동상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도의 ‘맞불 집회’ 참가자들의⁶⁶ 상반된 목소리와

65 김준기, 「사회예술가로서의 소녀상 현상」,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말, 2012), 169쪽.

66 ‘반일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위안부와 노무 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단체인 ‘반일동상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4일 이래, 매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의 주장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2020년 6월 23일, 수요시위 28년 만에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정의연의 수요시위 자리를 선점

주장이 있다. 여기엔, 정의연의 수요시위 현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 및 내용 미상의 불법 적치물”을 위시하여 정의연 주도의 시위장소에서 행해진 불법과 위법 사항뿐만 아니라⁶⁷,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전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에 대한 이슈 역시 포함된다.⁶⁸ 그리고 이 무법적 혼란에 빠진 변화의 후경에는 여전히 갈등 중인 우리 근현대사의 기억이, 그리고 그 변경에는 이 기억을 정치화 혹은 사유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 없는 그곳에 남아있는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반목하는 이들 정의연과 공대위가 빚어내는 이 소란한 풍경은 임지현이 언급한 기억 전쟁의 단면이다.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현재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실천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기에 기억은, 그리고 역사는, “첨예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⁶⁹

2015년 일본 정부는 맥그로힐사에서 출판한 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

한바, 이는 타 단체에 의한 최초의 장소 선점으로 기록되었다. 박순중, 「옛 일본대사관 앞 불법 천막 철거... 잘못된 실태에 대한 《펜앤드마이크》 보도 20여 일 만에 '정상화'」,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27일자; 정성조, 「28년 만에 수요시위 자리 뺀 정의연... 소녀상 앞 집회 불가」, 《연합뉴스》, 2020년 6월 22일자; 김종성, 「수요집회 중단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실체... 특히 이 사람」,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14일자.

67 소녀상 부근 천막을 위시한 불법 적치물은 2020년 2월 27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행정집행으로 강제철거되었다. 이들 불법 적치물에 대한 보도는 아래 《펜앤드마이크》의 기사 참조. 박순중, 「종로구, '위안부소녀상' 주변 천막 등 불법성 알고도 3년 6개월 넘게 방치... 계고장만 보내면 끝?」,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6일자; 박순중, 「구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은 무법천지... 이런 모습이 평화라는 말에 어울리나?」,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12일자; 박순중, 위의 기사, 2020년 2월 27일자.

68 2020년 9월 14일 윤미향에 대한 검찰 기소 내역 및 불기소 내역에 대해서는 심규선,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나남, 2021), 12쪽, 19~27쪽 참조.

69 임지현, 「기억: 21세기 한반도의 열려있는 기억 문화를 위하여」, 윤평준·이진우·전상인·임지현·김석호,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아시아, 2018), 160쪽.

며 공적 기억을 통제하고자 하는 비틀어진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⁷⁰ 이 욕망의 기저에는,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가 지적한 바 있는, 공문서를 통해 “사회의 기억”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권력”을 획득하고자⁷¹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선택되어 활성화될 기억은 미래로 투사될 우리의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⁷²

그러나, 2015년 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며 기억 전쟁의 전면에 등장했던 일본 정부는, 소녀상과 그것이 함축하는 동시에 도래케 할 과거와 미래의 기억을 사이에 두고 정의연과 공대위가 대치하는 중학동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 정의연과 공대위의 대치 구도는 주한일본대사관 철거 이후 본격적

70 역사 교과서 왜곡은 조작되는 공적 기억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예다. 2015년 1월, 미국 맥그로힐(McGraw-Hill)사는 일본 정부가 전년 12월에 본사에서 출판한 세계사 교과서, 『전통과 조우: 과거에 대한 세계적 관점(Traditions and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의 저자인 허버트 지글러(Herbert Ziegler) 하와이 대학교 교수와 출판사에 ‘위안부’ 관련 기술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년 3월, 미국역사협회 소속(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AHA) 미국 역사가 20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지글러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며,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하고 일본 역사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 해 5월 해외의 일본연구 학자 187명(후에 457명)의 ‘일본 역사가를 지지하는 성명’이 공개되었다. 야마구치 도모미, 「관민일체의 ‘역사전’의 행방」, 야마구치 도모미·노가와 모토카즈·테사 모리스 스즈키·고야마 에미(저), 임명수(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어문학사, 2017), 180쪽, 188쪽, 189쪽; Fifield, Anna, “Japanese Historians Contest Textbook’s Description of ‘Comfort Women’”, *Washington Post*, March 17, 2015; Multiple Authors, “Letters to the Editor: 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 *Perspectives on History*, March 1, 2015.

71 이종흡, 「서양 기록학계의 기억 담론: 『아카이브 병』을 전후로」, 『역사와경계』 제109권 제12호(2018), 477쪽.

72 동시에, 우리의 정치적 실천은 동북아 정세와 패권국의 정치·외교적 필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고야마 미에, 「미국 ‘위안부’ 설치에 대한 공격」, 야마구치 도모미 외,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어문학사, 2017), 97쪽.

으로 부상·부각한 구도로, 그곳에 일본은 없다. 그러니 반목하는 그들의 외피는 국가 간의 욕망과 갈등으로 점철된 국제전적 양상이라기보다는 내전의 양상으로, 이들은 젠더 갈등을 포함하여⁷³ 우리 안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분열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팔머의 논의를 상기한다면, 일본 ‘없는’ 그곳은, 환유로 치환된 일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여, 주한일본대사관 없는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환유) 앞 소녀상 주변에 모인 그들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켜내려는 것은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환유)을 둘러싼, 선택적·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기억하거나, 혹은 비활성화하여 망각하려는 기억일 것이다. 그러니, 반목하는 두 진영이 모인 소녀상 있는 이곳에는 비가시적이나 작동하는 힘으로 존재하며, 사라졌으나 환유로 치환된 ‘옛’ 주한일본대사관이 있다. 허물어져 사라져버렸다고, 그러니 부재한다고 상상되던 옛 주한일본대사관은 정의연과 공대위라는 두 진영으로 표상되는 반목하는 자기력을 그 깊숙이에서 매개하며 움직이고, 매개하며 작동하며,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역사적 의제가 - 현재로 환원된 역사의 쓰레기가⁷⁴ -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옛’ 주한일본대사관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이곳은 그러니, 모든 것이 환유적으로 남아있는⁷⁵ 혼돈의 장이기도 하다. 이 혼돈의 장에서 이들 상충하는 주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피상적으로나마 막아

73 ‘소녀’로 재현된 ‘위안부’를 둘러싼 국내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허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 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학사』 제29권 제12호(2018년 12월), 132쪽 참조.

74 위의 표현은 콜하스의 건축에 대한 유비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에 의해 현재 불거지는 논쟁이라는 점에서 비유적 접점을 지닌다.

75 Derrida, Jacques, *op. cit.*, p. 3.

서는 것은 '선을 넘지 말라'며 그들 사이에 설치된 경찰통제선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병력이다. 동일한 통제선과 병력이 시위대 전면에도 설치되어 이들 두 시위대의 '없(있)는 곳' - 옛 주한일본대사관의 터 - 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선을 넘지 마시오.’

당장의 불편함은 잠시 후 경험하게 될 쾌적함 혹은 편리함으로 보상받게 되리라 기대케 하는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유혹적인 표지판⁷⁶과 달리, ‘선을 넘지 마시오’에는 통제선 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나 약속은 없다. 대신, 분열된 공동체가 거기 있음에 대한 강력한 색인으로 작동하는 ‘선을 넘지 마시오’라는 통제선이 지시하는 그곳에는 이질적 타자로부터의 “격리”, 혹은 이질적 타자의 “배제”와 그에 따른 “과잉보안”이 있을 뿐이고⁷⁷, 소통하지 않는 일방향의 단절된 메시지가 있을 뿐이며⁷⁸, 생략된 접속부사 ‘그러지 않으면’과 함께 생략된 무언의 압력이 있을 뿐이다 - 선을 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불쾌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선을 넘지 않은 통제선 너머의 이들은 양 진영으로 갈라져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거나, 상대 진영의 발언을 교란하며

76 렘 콜하스, 「정크스페이스」, 렘 콜하스·프레드릭 제임슨(저), 임경규(역),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문학파지성사, 2020), 20~21쪽.

77 “출입통제 공동체”를 “분열된 도시 공간의 은유”로 독해하는 요시하라 나오키(吉原直樹)는, 이질적인 타자로부터의 “격리”를 함의했던 “출입통제 공동체”가 이제는 이질적인 타자의 “배제”를 함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출입통제 공동체에 있어서 “보안(security)의 과잉화”는 필연적이다. 요시하라 나오키(저), 이상봉·신나경(역), 『모빌리티와 장소』(심산출판사, 2010), 294~295쪽.

78 이에 대해 김서경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소통하지 않는 정부를 읽어낸다고 백지홍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백지홍, 「비극과 희망을 담은 소녀상: 김운성, 김서경 인터뷰」, 『미술세계』 제375권(2016년 1월), 61쪽.

소극적 대립만을 피할 뿐이다. 선을 넘어 상대 진영과 더불어 대화와 토론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그곳엔, 그러니 광장이 들어서지 못하고, 광장이 들어서지 못하는 그곳엔 ‘거리 정치’만이 산발한다.⁷⁹⁾

선을 넘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A와 B라는 두 점의 연결,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인문지리학자 팀 크레스웰에 의하면, 선을 넘지 않은 우리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제 움직임에 내재한 실천”⁸⁰⁾을 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놓치는 것이 무엇일지 알지도 못한 채.

IV. 맺음말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이처럼 선을 넘지 못하는 분열된 공동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장소 특정적 미술품이라는 범주적 선을 넘으며, 선을 넘는 실천을 통하여 “특정 민족의 기억을 넘어서는 식민주의적 담론과 전쟁의 잔인성에 대한 보편적 기억을 끌어내고,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표상적 상징물로 자리매김”⁸¹⁾하는 동시에, 몸에 대한 여성(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공고히 하는 소녀상 또한 존재한다.

79 정진웅은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열린 정치를 “광장정치”로, 그와 반대로 폐쇄적인 집단 정치 행위를 소극적인 “거리 정치”로 구분한다. 정진웅,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1호(2020), 38쪽.

80 팀 크레스웰, 「모빌리티의 이론화」, 팀 그레스웰·미카엘 르마르상(저), 박재연(역), 『선을 넘지 마시오』(엘피, 2021), 29쪽, 32쪽.

81 이봉옥, 「2019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나타난 신제국주의와 억압된 애도」, 『예술과 미디어』 제20권 제1호(2021), 158~159쪽.

처음,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겠다는 소박한 의도로 기획된 소녀상은 기획 의도와 예상을 뛰어넘으며, 우리 시민과 연대하고 세계 시민과 공감하며 공동체 기반의 행동주의적 설치 작품으로 성장하였다.⁸² 종로구 중학동의 그것은 그곳에 있는 동시에, 그곳을 떠나 버스를 타고⁸³ 그곳의 풍경을 학교와 광장⁸⁴, 그리고 거리로 변주·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월드와이드웹(www)을 타고, 국경을 넘고 세상을 누비며 의미의 외연을 확장 중이다.

그동안 우리는 터키로부터 집단 학살의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던 미국 글렌데일시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소녀상이 글렌데일시에 설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위안부’ 문제가 지닌 인류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⁸⁵, 조각가 로자리아 이아제타(Rosaria Iazzetta)가 트위터에서 시작한 ‘소녀상 - 되기 릴레이 운동’을 통하여 차별과 검열의 대상인 소녀상이 “민족적 경계뿐만 아니라 예술가 집단과 시민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⁸⁶는

82 이와 같은 변모를 김부자는 소녀상의 ‘성장’이라 표현한다. 김부자, 앞의 논문, 299쪽.

83 2017년 7월, 세계위안부기림일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앞을 경유하는 151번 버스(동아운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버스에 소녀상을 싣고 운행하였다. 소녀상 버스 나들이는 이후 수원, 성남, 춘천, 전주, 거제 등지로 확대되었다. 남은주, 「‘소녀상’ 버스 탄 박원순 시장 위안부 합의, 새로 이뤄져야」, 《한겨레》, 2017년 8월 14일자; 김선경, 「평화의 소녀상 버스 타고 거제 시내 누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30일자.

84 정의기억재단은 기림일인 8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500명을 기리는 소녀상 500개를 전시하여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심윤지, 「버스에 탄 ‘위안부’ 소녀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자.

85 일본 우파세력과의 첫 번째 전쟁터이기도 했던 미국 글렌데일시에 해외 최초로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지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전’과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일본연구』 제81호(2019), 73쪽; 이봉욱, 앞의 논문, 158쪽.

86 이 운동은 8월 4일 이탈리아 조각가 로자리아 이아제타(Rosaria Iazzetta)가 트위터에 ‘아이치트리엔날레 검열에 항의하는 평화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족적 경계뿐만 아니라 예술가 집단과 시민 집단의 경계를

저항의 움직임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소녀상에 이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과 능욕당한 베트남 여성을 기리는 베트남 피에타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어 '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의 문제로 확장해내기도 하였다. 소녀상은 이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동시에 우리(그들)를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선을 넘는 동시에 우리(그들)로 하여금 선을 넘게 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며 풍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 중이다.

이처럼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받던 장소에 설치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품으로 시작한 소녀상은, '선을 넘지 못'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포함하는 진영 간 대립과 소동을 넘어, 새로운 풍경 속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⁸⁷ 그러니,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새로운 변신이 과연 어떤 풍경을 기획해낼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하는 풍경 속 우리는 실천하는 신체로서 어떤 풍경을 그려내게 될 것인지 다시금 기대에 차 논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넘어 진행된 이 운동에 대하여 박현선은 "21세기 글로벌 검열문화의 집요한 작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검열 너머 예술적 실천들"로 평가한다. 박현선, 「위험한 기억과 글로벌 검열문화」, 『사이』 제28권 제12호(2020), 452쪽.

- 87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품으로 시작한 소녀상의 이와 같은 변화는 후루카와 미카(古川美佳)의 분석처럼 사회적 쟁점과 정치적 행동주의를 전면화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백규석, 「공공미술로서의 '소녀상'과 재현의 정치학」, 『ContentPlus』 제17권 제6호(2019), 54쪽.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미원(저), 김인규·이영옥·우정아(역), 『장소 특정적 미술』. 서울: 현실문화, 2013.
-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평화의 소녀상 작가 노트』. 서울: 말, 2012.
- 김세린, 『평화의 소녀상을 그리다』. 파주: 보리, 2018.
- 사와다 가쓰미(저), 정태섭(역), 『한국과 일본은 왜?』. 서울: 책과함께, 2020.
- 사토 겐지(저), 정인선(역), 『풍경의 생산, 풍경의 해방』. 서울: 현실문화, 2020.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서울: 한울, 2003.
- 심규선,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파주: 나남, 2021.
- 요시하라 나오키(저), 이상봉·신나경(역), 『모빌리티와 장소』. 서울: 심산출판사, 2010.
- 최범, 『한국디자인과 문화의 전환』. 파주: 안그래픽스, 2019.

- Derrida, Jacques, *Athens, Still Remains*. Pascale-Anne Brault and Michael Naas(tran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 Ots, Enn, *Decoding Theoryspeak: An Illustrated Guide to Architectur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 Palmer, Donald,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for Beginners*. New York: Writers & Readers Publishing, Inc., 1997.

2. 논문

- 고야마 미에, 「미국 '위안부' 설치에 대한 공격」. 야마구치 도모미·노가와 모토카즈·테사 모리스 스즈키·고야마 에미(저), 임명수(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서울: 어문학사, 2017, 61~111쪽.
-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2017, 279~322쪽.
- 김준기, 「사회예술가로서의 소녀상 현상」.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서울: 말, 2012, 163~179쪽.
- 리영희, 「주한일본대사관」. 『정경연구』 제78권, 1971년 7월, 90~102쪽.

- 렘 콜하스, 「정크스페이스」. 렘 콜하스·프레드릭 제임슨(저), 임경규(역),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7~53쪽.
- 박미예, 「장소를 형성하는 공공미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7권 제5호, 2021, 21~32쪽.
- 박지윤, 「정의의 여신상과 소녀상」. 『법과사회』 제63권, 2020년 2월, 25~49쪽.
- 박현선, 「위험한 기억과 글로벌 검열문화」. 『사이』 제28권 제12호, 2020, 429~457쪽.
- 백규석, 「공공미술로서의 ‘소녀상’과 재현의 정치학」. 『ContentPlus』 제17권 제6호, 2019, 51~63쪽.
- 백지홍, 「비극과 희망을 담은 소녀상: 김운성, 김서경 인터뷰」. 『미술세계』 제375권, 2016년 1월, 56~65쪽.
- 야마구치 도모미, 「관민일체의 ‘역사전’의 행방」. 야마구치 도모미·노가와 모토카즈·테사 모리스 스즈키·고야마 에미(저), 임명수(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서울: 어문학사, 2017, 151~213쪽.
- 우에노 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관점」. 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저), 서재길(역),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서울: 어문학사, 2020, 27~61쪽.
-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제6호, 2012, 196~215쪽.
- 이봉옥, 「2019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나타난 신제국주의와 억압된 애도」. 『예술과미디어』 제20권 제1호, 2021, 149~167쪽.
- 이승훈, 「공공미술과 공론장 형성: ‘공공성 딜레마’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제43권 제4호, 2019, 43~68쪽.
- 이영희, 「주한일본대사관」. 『자유』 제2호, 1985년 8월 15일, 18~29쪽.
- 이종흡, 「서양 기록학계의 기억담론: 『아카이브 병』을 전후로」. 『역사와경계』 제109권 제12호, 2018, 453~487쪽.
- 이지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전’과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일본연구』 제81호, 2019, 61~83쪽.
- 임경규, 「해제: 정크스페이스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렘 콜하스(저), 임경규(역),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95~113쪽.
- 임지현, 「기억: 21세기 한반도의 열려있는 기억 문화를 위하여」. 윤평준·이진우·전상인·임지현·김석호,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파주: 아시아,

2018, 160~204쪽.

전혜숙, 「리처드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특수성」. 『현대미술사연구』 제10권, 2000년 3월, 63~95쪽.

정진웅,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1호, 2020, 35~64쪽.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3, 101~116쪽.

차승기, 「불안한 조우-식민지/제국 시기 홍남-미나마타(水俣)의 이주노동자들」. 『인문학연구』 제54집, 2017, 443~470쪽.

팀 크레스웰, 「모빌리티의 이론화」. 팀 그레스웰·미카엘 르마르샹(저), 박재연(역), 『선을 넘지 마시오』, 서울: 엘피, 2021, 29~49쪽.

허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 『여성과역사』 제29호, 2018년 12월, 131~163쪽.

Koolhaas, Rem, “Junkspace.” *October*, Vol. 100, Spring, 2002, pp. 175~190.

Mitchell, W. J. T., “An Interview with Barbara Kruger.” *Critical Inquiry*, Vol. 17, No. 2, 1991, pp. 434~448.

Mitchell, W. J. T., “Introduction.” W. J. T. Mitchell(ed.), *Landscape and Powe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p. 1~4.

Serra, Richard, “‘Tilted Arc’ Destroyed.” *Nova Law Review*, Vol. 14, Issue 2, 1990, pp. 385~406.

Shim, David, “Memorials’ Politics: Exploring the Material Rhetoric of the Statue of Peace.” *Memory Studies*, 2021, pp. 1~14.

3. 신문 기사

김도형, 「일 정부, 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에 강력 반발」.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김도훈, 「일본대사관 신축 지연, ‘소녀상 때문’은 공공연한 비밀」. 《연합뉴스》, 2019년 11월 5일자.

김선경, 「평화의 소녀상 버스 타고 거제 시내 누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30일자.

김종성, 「수요집회 중단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실체… 특히 이 사람」.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14일자.

남은주, 「소녀상 버스 탄 박원순 시장 위안부 합의, 새로 이뤄져야」. 《한겨레》, 2017년 8월 14일자.

박순중, 「종로구, ‘위안부소녀상’ 주변 천막 등 불법성 알고도 3년 6개월 넘게 방치… 계고장만 보내면 끝?」.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6일자.

_____, 「구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은 무법천지… 이런 모습이 평화라는 말에 어울리나?」.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12일자.

_____, 「옛 일본대사관 앞 불법 천막 철거… 잘못된 실태에 대한 《펜앤드마이크》 보도 20여 일 만에 ‘정상화」. 《펜앤드마이크》, 2020년 2월 27일자.

박창욱,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위법·외압 의혹」. 《머니투데이》, 2013년 10월 14일자.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서울+문화》, 2016년 4월.

심윤지, 「버스에 탄 위안부 소녀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자.

오세중,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한대사관의 역사: 일본대사관 편」. 《아주경제》, 2014년 1월 24일자.

외교부|외교문서공개, 「[5901]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1974, 전 3권」. 2005.

이돈형, 「관광 민영화위커힐 반도호텔도 팔린다」. 《중앙일보》, 1968년 11월 30일자.

이동휘·정우영, 「일,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끝나 돌연 취소」. 《조선일보》, 2019년 4월 10일자.

이진현, 「[호텔산업의 탄생(2) | 반도호텔의 등장] 日 자본 결정체…해방 후 美 대사관으로」. 《월간중앙》 1455호, 2018년 10월 22일자.

임동준·조선희, 「일본대사관 지으라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년 4월 12일자.

임인택·노형석·박병수, 「주한일본대사관 3배 크기로 신축 추진」. 《한겨레》, 2012년 6월 23일자.

장보경, 「가장 오래된 단일 집회… 오늘 1,400회 수요시위」. 《연합뉴스》, 2019년 8월 14일자.

전우용, 「[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화학비료」. 《한겨레》, 2019년 8월 13일자.
정성조, 「28년 만에 수요시위 자리 뺏긴 정의연… 소녀상 앞 집회 불가」. 《연합뉴스》, 2020년 6월 22일자.

차승기, 「[1930년대, 우리 시대의 뿌리를 찾아서] '식민주의의 그라운드 제로' 홍남」.
《주간경향》 1235호, 2017년 7월 18일자.

한태열, 「주한 전초지 일본대사관」. 《동아일보》, 1966년 8월 15일자.

홍희곤, 「반도호텔/해방 후 격동 속 「작은 정부」로 「위세」(그때 그 자리)」. 《한국일보》, 1992년 2월 6일자.

「반도 '호텔' 철거 작업 한창」. 《중앙일보》, 1974년 11월 21일자.

Fifield, Anna, "Japanese Historians Contest Textbook's Description of 'Comfort Women'." *Washington Post*, March 17, 2015.

Multiple Authors, "Letters to the Editor: 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 *Perspectives on History*, March 1, 2015.

4. 공유자료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20시행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리영희 선생님이 전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이야기」. 2019. 8. 2(<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27>).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

외교부|외교문서공개, 「[5901]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1974」(<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1.page>).

정의기억연대(<https://womenandwar.net/kr/>).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https://www.kr.emb-japan.go.jp/em/dsk_guide.html).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https://overseas.mofa.go.kr/jp-ko/index.do>).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본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터를! '재일 기업인 서갑호」(https://www.pa.go.kr/portal/contents/stroll/special/view.do?bd_seq=9).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https://www.gsa.gov/historic-buildings/jacob-javits-federal-building-james-watson-court-international-trade-new-york-ny>).

국문초록

풍경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 논문은, 장소 특정적 설치물인 소녀상이 그 특정 장소를 잃게 되었다고 상정되는 2016년 주한일본대사관의 철거 이후, 중학동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빚어지는 사회·정치적 풍경의 변화에 집중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때, 물리적으로 철거되었으나 환유적으로 남아 존재하는 주한일본대사관은 한·일 양국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에서 파생한 낙진으로, 소녀상은 이 낙진의 온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상징으로 독해한다.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본 논의의 끝이 가리키는 것은 ‘-되어간다’는 동사적 역학 속에 존재하는 유기적 복합체로서의 풍경이다. 본 논문에서 풍경은 사회·정치적 자극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풍경 속의 것들과 풍경 밖의 것들을 변주하며 풍경을 확장·구성한다. 소녀상은 중학동 풍경을 넘어,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그리고 이념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움직이는바, 소녀상을 둘러싼 풍경이 다채로워짐에 따라, 그것의 의미 또한 다층화됨은 물론이다. 풍경에 대한 본 논의에는 ‘참여하는 신체’, 인간 역시 포함된다. 풍경이란 결국 인간 실천의 흔적이자 인간 실천을 포용하는 거대한 한 권의 책이기 때문이다.⁸⁸ 이에 남겨진 과제는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다.

투고일 2021. 12. 20.

심사일 2022. 1. 13.

게재 확정일 2022. 2. 10.

주제어(keyword) 풍경(Landscape), 주한일본대사관(Embassy of Japan in Korea), 평화의 소녀상(Sonyeosang; Statue of Peace)

88 사토 겐지(저), 정인선(역), 『풍경의 생산, 풍경의 해방』(현실문화, 2020), 8쪽.

Abstract

How Does Landscape Change?: Sonyeosang, the Embassy of Japan, and Junghak-dong Choi, Hee Jion

How does the landscape change?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by addressing socio-political landscape changes, evolved in Junghak-dong with Sonyeosang,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 and the Embassy of Japan, its site. It particularly examines the landscape changes after 2016, as Sonyeosang,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 is assumed to have lost its site, since the Embassy's demolition in 2016. In approach to the question above, the physically demolished however metonymically remained Embassy is read as the fallout from the unsuccessfully resolved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whereas Sonyeosang is read as a sign urging a proper solution to it. What the discussion, beginning with the question of 'how', points to is the landscape as an organic complex in verbal dynamics of 'coming-to-be'. The landscape, affecting and affected by socio-political stimuli, expands and reconstructs itself in variations with which is within and without itself. Hence, the landscape unfolds the organicity of which is in progress, ever. Sonyeosang travels beyond the landscape of Junghak-dong; across the national, cultural, ethnic, and ideological boundaries. The landscape, which is variegated by traveling Sonyeosang, comes to generate and deploy layers of meanings. In this discussion of the landscape is 'a participating body', a human included. This is because the landscape is, after all, a trace of human practice and a huge book that embraces it.⁸⁹ The task left here is how to read the book.

⁸⁹ Sato, Kenji, *Punggyeongui Saengsan, Punggyeongui Haebang*, Jeong Inseon(trans.), Hyunsil Munhwa, 2020, p. 8.

